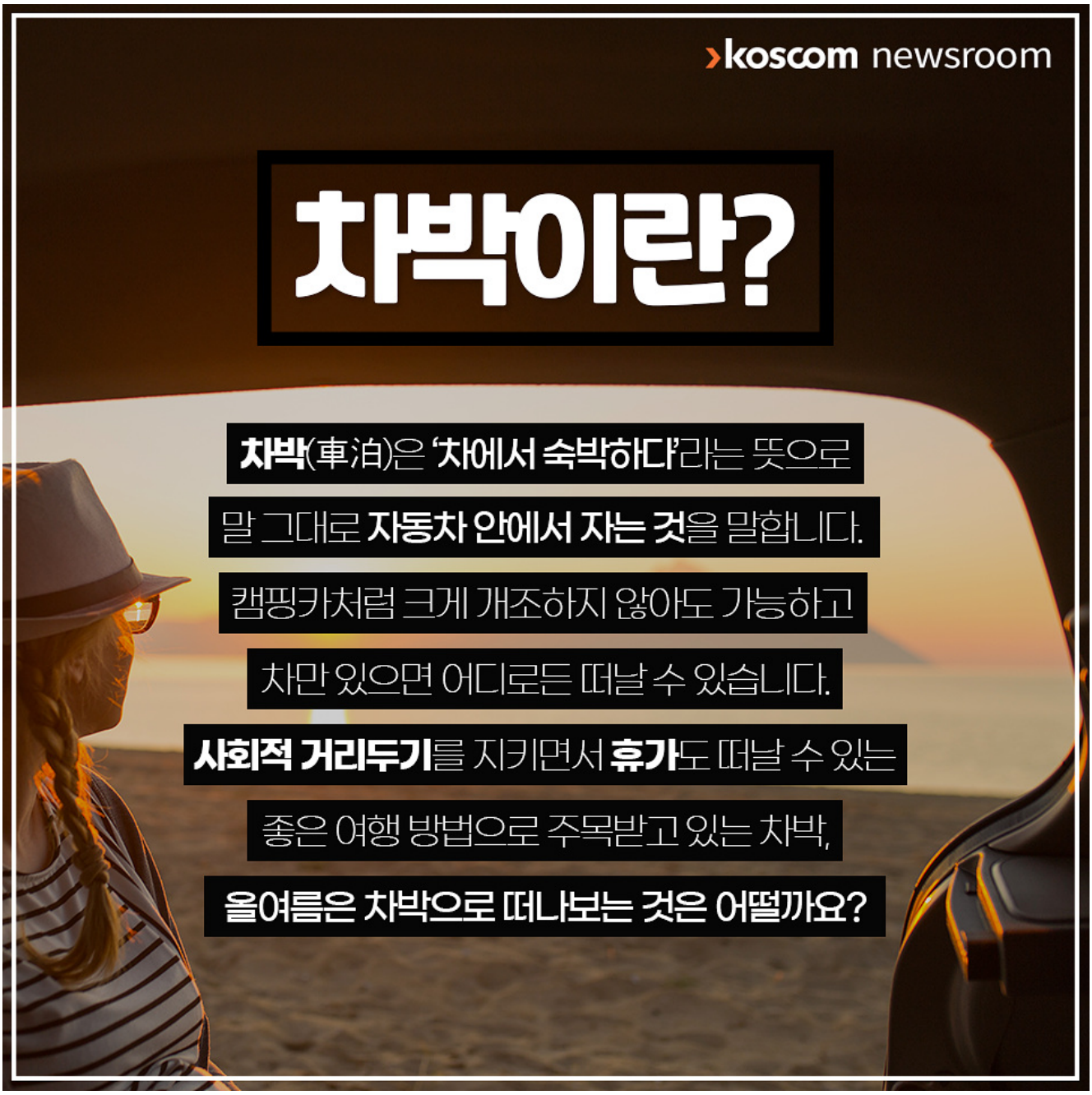
[카드뉴스] 다가온 휴가철, 떠나야 하는 우리 차박의 모든 것

FUN&뻔

뻔하지만 알아두면 FUN한 다양한 정보&팁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가온 휴가철, 어디로 떠나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관광지와 숙박시설이 꺼려진다면 사회적 거리를 두며 비접촉 여행을 할 수 있는 '차박' 여행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요? 떠나기 전 차박의 방법과 장단점,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koscom newsroom
차박이란?
차박(車泊)은 '차에서 숙박하다'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자동차 안에서 자는 것을 말합니다.
캠핑카처럼 크게 개조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차만 있으면 어디로든 떠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휴가도 떠날 수 있는
좋은 여행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박,
올여름은 차박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차박 하는 방법 ①



우선 좁은 차량에서 평평하게 누울 자리를 만드는 평탄화 작업이 중요합니다. 뒷좌석 등받이를 접어 넣고 에어매트를 설치합니다. 차량에 따라 맞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차량에 맞는 평탄화 작업 사례를 찾아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koscom newsroom

차박 하는 방법 ②



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거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개조가 가능했으나

지난 2월부터 법령이 바뀌어 모든 차종의 개조가 허용되었습니다.

차박에 푹 빠진 차박매니아라면 개조도 고려해볼만 하겠죠?

koscom newsroom

차박하는 방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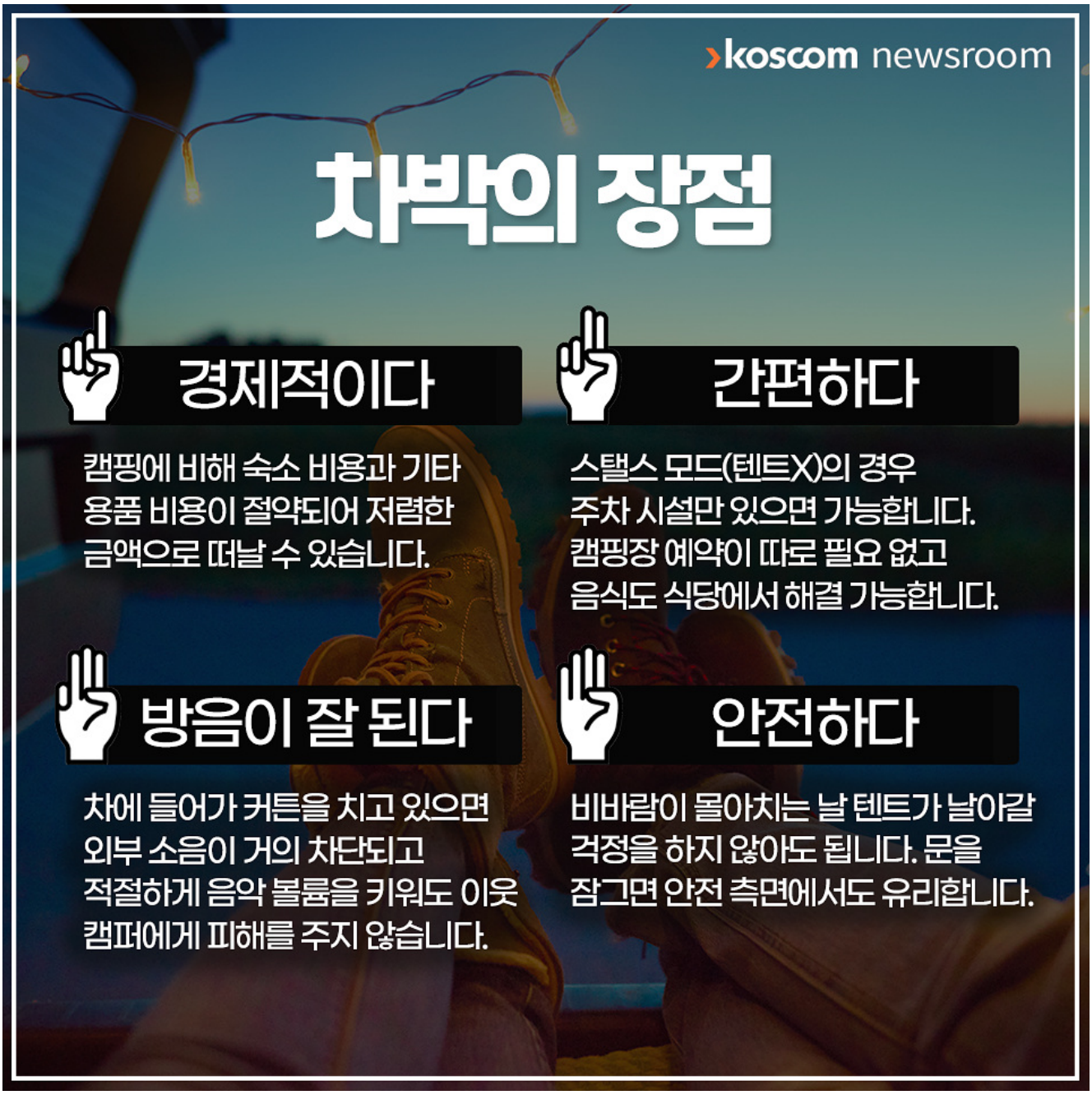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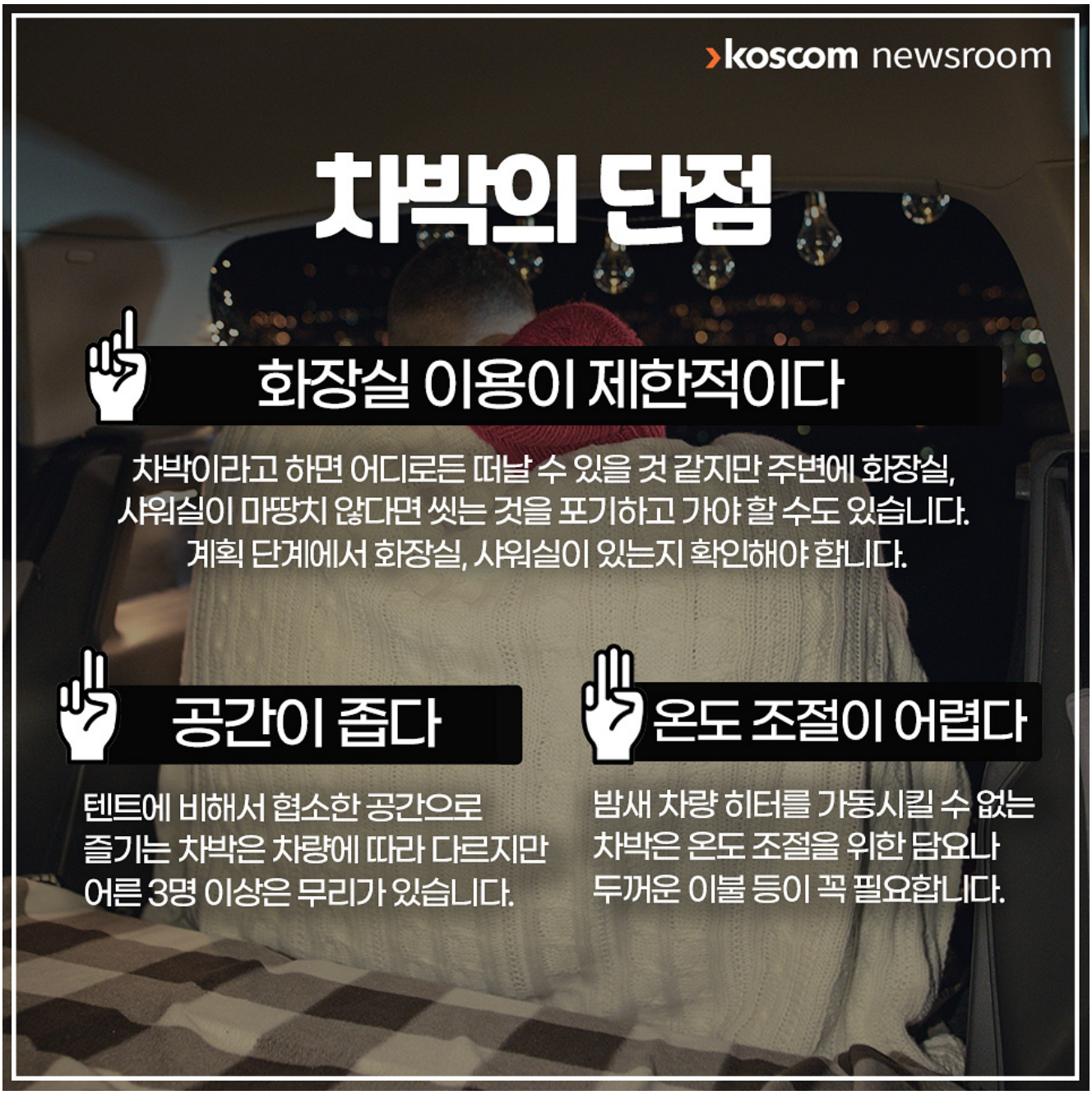
텐트를 보조수단으로 삼아보세요!

루프톱 텐트(차 지붕에 올리는 텐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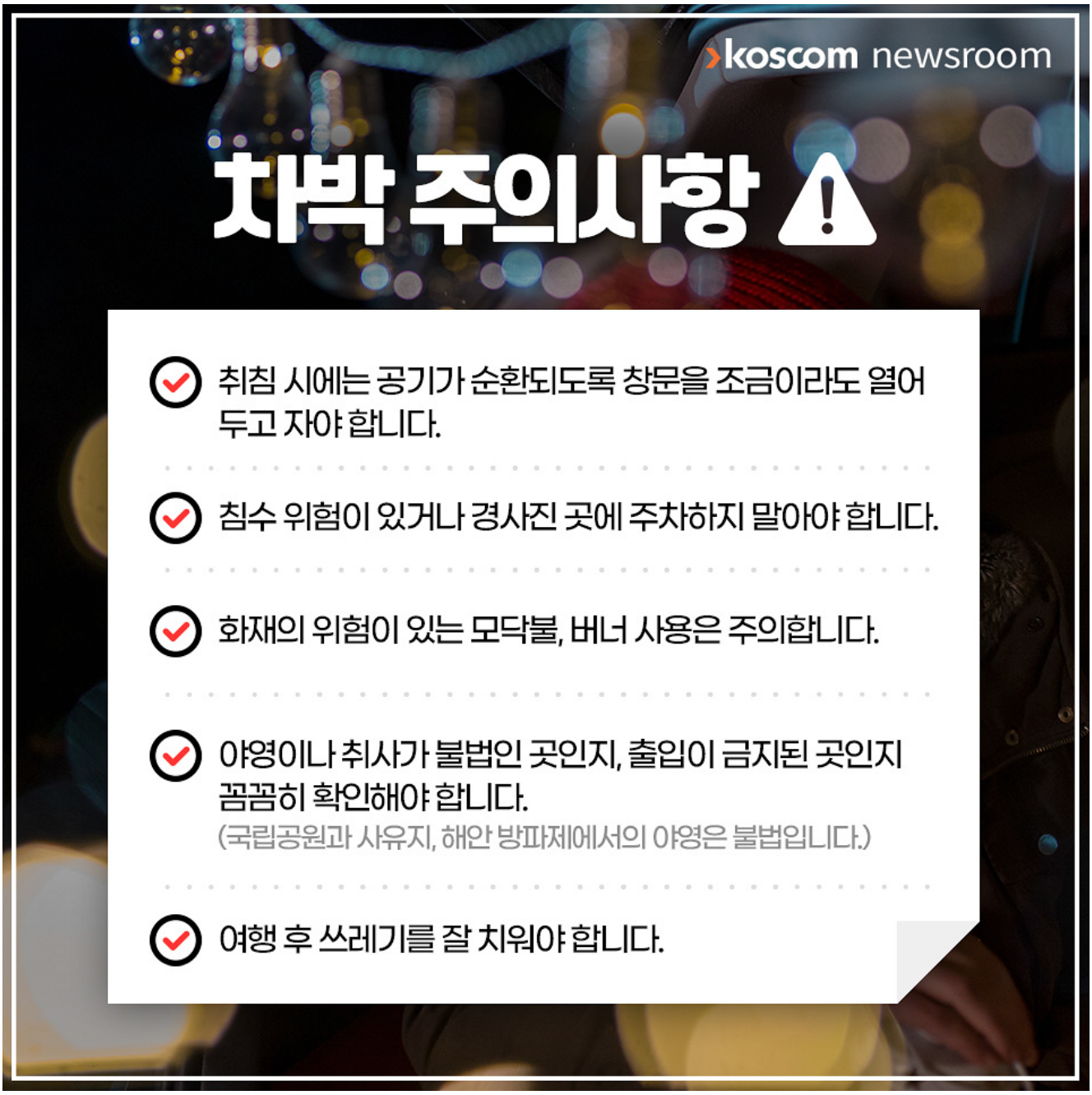
도킹텐트(차 트렁크나 문 쪽에 연결하는 텐트)로

차박을 더 풍요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koscom newsroom
차박의 장점
경제적이다
캠핑에 비해 숙소 비용과 기타 용품 비용이 절약되어 저렴한 금액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간편하다
스탤스 모드(텐트X)의 경우 주차 시설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캠핑장 예약이 따로 필요 없고 음식도 식당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방음이 잘 된다
차에 들어가 커튼을 치고 있으면 외부 소음이 거의 차단되고 적절하게 음악 볼륨을 키워도 이웃 캠퍼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안전하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텐트가 날아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을 잠그면 안전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koscom newsroom
차박의 단점
화장실 이용이 제한적이다
차박이라고 하면 어디로든 떠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변에 화장실,
샤워실이 마땅치 않다면 씻는 것을 포기하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화장실, 샤워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간이 좁다
텐트에 비해서 협소한 공간으로
즐기는 차박은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어른 3명 이상은 무리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이 어렵다
밤새 차량 히터를 가동시킬 수 없는
차박은 온도 조절을 위한 담요나
두꺼운 이불 등이 꼭 필요합니다.


koscom newsroom
차박 준비물
편안한 잠자리를
책임져주는
차량용 에어매트
온도 조절을
위한 담요, 이불
햇볕과 벌레를
막아주는
창문 가리개와
방충망
식사를 위한
간이 테이블과
의자, 식기
전기를 쓸 수 있는
소형 발전기
낭만을 채워줄
블루투스 스피커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